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Aviva, 아시아시장 재공략

□ 자산규모 세계 5위인 Aviva는 2004년 아시아 손해보험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6년 만에 다시 이들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.

- 2004년 아시아 손해보험사업을 미쓰이 쓰미토모에게 매각(4억5천만달러)한 이후 비경쟁협약기간이 종료된 최근 아시아 손해보험시장에 재진출하기로 함.
- 온라인마케팅을 이용한 싱가포르 자동차보험시장 진출을 출발점으로 하여 2~3개월 내에 가계성보험과 여행자보험을 추가할 예정이며, 점차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Aviva는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한 바 있으며,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확대되어 외국사 중 랭킹 3위로 올라선 것으로 알려짐.
- 자본조달 측면에서는 최근 Australian Life와 호주내 자산관리회사를 National Australian Bank에 매각(8억6천3백만달러)하면서 아시아시장에 대한 진출을 구체화 한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, 베트남도 낮은 보험침투율(1.4%)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며, 경쟁그룹이 이미 진출하고 있어 유력한 진출 후보로 간주되는 상황임.

□ 그러나 아시아 보험시장 진출은 Aviva가 2010년 3월에 발표한 유럽중심의 성장 전략과 일관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투자자와 에널리스트 등에 대한 설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.

- Aviva는 Prudential의 AIA 인수시 아시아시장은 자산시장의 풀(pool)이 적고 소비자 행동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시장이 미래시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.
- 에널리스트들은 포기했던 영국의 단체보험시장과 자본강화 문제로 상품을 축소했던 미국의 변액연금사업을 다시 확대하며,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거나, 유럽내 손쉬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흡수합병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겠지만 기존의 성장전략과는 일관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성장동력도 될 수 없다고 밝힘.
- Aviva는 이에 대해 아시아는 비용대비 수익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Allianz, Generali, Zurich Financial Services, Axa 등 거대 보험그룹들도 장기성장 전략과 관련 없이 동일한 이유로 아시아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함.

(Financial Times, 4/10)